

결혼과 여성의 지위 - '무소의 뿔 세대'의 결혼문화

굴욕적인 아픔에서 벗어난 첫 세대의 선택



소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연극에서도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무소의 뿔...>은 우울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결혼을 주제로 한 대중문화 상품들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을 전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아왔는데 <무소의 뿔...>은 그와 정반대의 정서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흥행에 성공 중이다. 결혼이란 여성에게 파괴적이고 위선적이며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우울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가 직설적으로 흘러나오는 작품 <무소의 뿔...>에 많은 여성들이 몰려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다. 이 작품을 주제로 한 감동의 파장은 '무소의 뿔 신드롬'이라고 이름붙일 만하게 독특한 여성심리의 단면을 보인다.

불안한 페미니즘 세대의 우울한 전망

'무소의 뿔 신드롬'은 결혼문화에서 일종의 세대교체를 예고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2,30대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심리적 공감대인데다, 지금까지의 여성들의 결혼생활과는 현격한 단절을 보인다.

'무소의 뿔 신드롬'의 주인공들은 우선 '페미니즘 대중화의 첫번째 세대'라고 부를 만하다. 대중문화의 한 요소로 등장한 페미니즘을 소화하고 자란 세대들이 현실의 결혼문화를 바라볼 때의 느낌을 담은 것이 이 심리적 증후군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의 머리 속에는 전통적인 여성비하적 논리와는 정반대의 언어로 꽂혀 있다. "여자는 ... 해야 하고"라는 말로 여성의 역할을 한정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여자가 생취해야 할 것, 여자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알리는 정보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과거의 선각자들이 여성권리의식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정에서만은 침묵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결혼생활, 가정, 가족관계를 현장에서 인식한다. 머리와 몸의 분리가 자연스러웠던 세대가 끝나고 이 세대는 머리 속의 이론이 몸을 담을 현실에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 당위의 부담이 큰 세대이다. 그게 제대로 안될 때 이 세대는 크게 고민하고 방향한다.

이 세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낭만적인 연애결혼의 세대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결혼은 '살면서 정드는' 뜻뜻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낭만적인 사랑의 플롯에 따른 열정적인 것이다. 남편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열렬하게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4, 50대에서는 '살기 위해' 결혼했다면, 이 세대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혼한다.

대중화된 페미니즘과 낭만적인 사랑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상적인 결혼이란 낭만적인 동시에 여성학적이야 하며 감정적으로 열렬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치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결혼이 이상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의식이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감지하고 있는 이들은 결혼을 계기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 거대한 골동품으로 존재하는 결혼문화가 페미니즘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신을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는 데서 오는 우울과 공포인 것이다. 더구나 이들이 알고 있는 페미니즘은 결혼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함구무언,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에게 현재의

결혼문화란 무척 싫은 어떤 것이고 자기를 삼켜버릴지도 모르는 괴물과도 같은 존재이고, 이 괴물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할 뿐이다. 이들의 강한 이론적 성향과 실제 상황에 대한 무지는 진보적인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들의 불안은 '무소의 뿔 신드롬'이라고 이름붙이고 이 증세를 공유하는 여성들을 '무소의 뿔 세대'라고 부를 만하다.

아픔이 없기에 아픔에 대항할 수 있는 세대들

<무소의 뿔...>은 대중화된 페미니즘 첫 세대들이 결혼문화와의 첫 대결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한 여자는 스스로 '누추한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이혼을 했고, 또 한 여자는 남편의 멸시를 물질적인 과시욕으로 보상받으며 위선적으로 살아 가고 또 한여자는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다 끝내 알콜중

독자의 자살로 결말을 냈다.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 객석에서는 엉엉 우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배우도 울고 관객도 운다. 그동안 말 못하고 가슴 속에 담아왔던 아픔들이 무대를 통해 객관화 되자 그제서야 '울음 소리'로 내뿔어지고 있다. 작품 속의 세 여자의 고통은 독자와 관객의 공감대를 이루어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 연극에 대한 반응은 몇 가지로 나뉜다. 20대의 여성에게서는 "결혼을 앞두고 혹시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던 결혼의 면면들이 속속들이 파헤쳐져서 감동적이다"는 공감이 나온다. 같은 또래의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극중에서 결혼수칙까지 만들면서 평등한 결혼을 꿈꾸다 좌절하고 이혼하는 소설가 역할을 맡았지만 자신은 완벽하게 동지적인 결혼이 가능하다는 '환상'이 있다고 밝혔다.

40대의 관객은 자신이 이 연극보다는 좀더 인생을 살았

다고 밝히고 세 유형의 등장인물의 고민은 자기 세대도 겪어온 것들이라고 말한다. 단지 자기 세대는 그 고민들을 이유로 이혼하거나 자살하지 않고 '견뎌왔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50대 관객의 소감도 이 '견딜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풀어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연극에 나오는 세 여자의 속성이 내 속에도 모두 있어요. 그만한 고민들은 있었지만 그들처럼 항의하고 탈출하지 못했던 것예요. 연극에 나오는 여자들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결혼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소설을 쓰고, 아나운서 경력도 있고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여자들이라면 굉장히 하이클래스 여자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연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능력이 없었어

요. 갈등을 느껴도 그야말로 살림밖에는 모르고 집을 벗어나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무능력자들이었어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굴욕감을 참아내는 것밖에 없었죠. 연극 무대에 오른 저 세대는 우리들의 아픔을 몰라요."

4, 50대의 세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들의 아픔에 비하면 '새발에 피도 안될' 것에 과민반응하는 후배 세대를 통해 세대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사소해보이는 것들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정면대결하는 '무소의 뿔 세대'들은 '휘어지느니 부러지느니' 것을 택하는 이론 취향의 성향이 강하다. 성장기에서부터 워낙 아픔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기에 이들은 아픔을 느끼는 감성 체계가 더 발달해 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감히 아픔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일 앞에서 이혼과 죽음을 생각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의 결혼문화에 진입했음을 확인하게 해준 것이 <무소의 뿔...>의 큰 성과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불경을 마음에 새기고 당당한 혼자의 여행을 시작한 '무소의 뿔 세대'. 이들이 내디딜 앞으로의 행보가 무척 궁금하다.

<김효선 기자>